

세계 도처에서의 전쟁과 속도를 잡고 따라가기에 버거운 혼란 가운데서도 , 따뜻하고 묵묵히 사랑과 헌신으로 부족한 사람과 쿠바를 사랑해 주시는 동역자님들 위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 서신을 드립니다

종교 비자 관계로 6월 쿠바 입국을 계획하였으나, 이란과 이스라엘(미국)전쟁 이 종전되면, 6월경에는 쿠바의 공산 독재자 척결과 민주화, 라는 슬로건으로, 신학교에서도, 또 이곳 항공사에서도 3월이나 4월 중 쿠바 입국을 권하여, 관광비자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국제정세로, 새벽 1회 항공 외에 모두 일시 정지한 상황임)

평소, 학교측에서, 이전 학장님이 기사와 함께 공항 라이드로 오셨지만, 학교까지 편도요금 100\$ 이었던 것이 , 350불의 높은 차량 비용-왕복 700불까지 (1불1500원기준, 105만원) 요금이 상승하여, 학교 측에서는 아바나 분교 방문을 권장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미 분교 주변의 갈레로 분교에서 강의 일정이 약속되어 있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안면이 있는 쿠바 공항 기사와 연결되어, 편도만 160불로, 왕복 320불(48만원)로 신학교를 왕복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가 해결되었고,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학장님은, 기적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거리에서 어렵게 구입하는 석유 rhak



마차, 자전거, 트리시클로(3개바퀴로9명까지 가능함- 전기가 공급될때 충전후)



학교를 향하던 중 코스타리카에서 싸온 샌드위치와 과자를 나누며, 2시간 반동안 기사와 -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며,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것을 약속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했습니다.

신학교의 변화 -아침에 콩죽을 끓였습니다 . 물도 끓일 수 있고, 이렇게 전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실도 언제든지 염려 없이 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 일반적인 쿠바의 상황과 다르게, 학교는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 태양광을 통한 전기 시설이 제 방을 포함, 학생 기숙사와 강의실에 설치되었고, 기숙사에 온수 탱크와 ,신학교 모든 장소에서 인터넷이 쿠바 선교 29년째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의 탁월한 우주 기술을 배경으로, 미국인 선교 단체 단기 팀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신학교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정부가 알게 되면 모든 시스템을 철수하고 원점이 될 수 있으니 비밀유지를 요청 받았습니다 . 태양광을 믿고 새벽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낡은 샤워기에 모래나 마그네슘이 끼어 있어 전기가 충격을 일으킨 것인지, 젖은 머리를 닦고, 다시 물을 데워 샤워를 해야 하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고칠 수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이니 감사하고 , 잠결에 어둠 속에서 습관적으로 더듬어 화장실에 가던 중, 아 , 전기가 들어오지, 생각하며 전기를 켜고 화장실에 갈 수 있음이, 또한,여유 있게 계란을 삶고 음식도 데워먹을 수 있게 되었음이 감사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학교 밖의 쿠바인들은, 물과 전기가 거의 닿지 않고 있으며 대중 교통은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 부족- 학교의 상황과 다르게 , 일반 지역 가정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식품관리사 사라이는 세탁기를 학교 봉고로 싣고 학교에 와서, 엄청난 양의 세탁물을 - 길게 3줄 정도 - 밀린 세탁을 했습니다 - 전기는 하루 2시간, 어떤 경우는 2틀에 3시간 들어오기 때문이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 우물이 있어도 물을 탱크에 채울 수 없고, 우물이 집에 없음으로, 탱크에 채워진 적은 물로는 세탁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그 많은 세탁물을 학교 세탁기로 세탁하다가 고장이 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세탁기를 실어와서라도 세탁을 할 수 있는 전기와 물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총회 불발 - 2월달은 항상 신학교에서 전국의 목회자들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 총회가 열립니다 . 그러나 올 해 에는 나라 전체가 교통의 부재 -석유 고갈- 로 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 2월 총회에서 신학교 이전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무기한 연장된 상황입니다 .

신학교 차량이 - 3년만에 부품을 만들고, 고치고, 드디어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 후원해 주시고 쿠바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 봐 주신 옥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3년만에 수리된 신학교 차량 (26년된 9인승 봉고- 14명이 타고 이동)



오늘은 알렉스 목사가 시무하며 분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깔레로 교회에서 분교생들에게 (externos)강의가 있어 이른 아침에 3년만에 예쁘게 단장하고 얼굴을 보인 학교 봉고로 출발을 했습니다 ..

#분교에서 강의 - 깔레로 교회에 도착하니 , 분교장 ,알렉스 목사가 맞이했고.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분교 순회 과목인 세계 교회사를 강의 했습니다. 집중 강의 중, 휴식 시간(화장실) 5분을 주고,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그 5분조차 요동하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알렉스 목사와 학생들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강의였다며, 다음에도 순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체 식비를 지원하여, 모두 약25명이 함께 식탁을 나누었고, 작년에 베다니 교회(단기선교)가 남겨주신 선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3번째 분교 학생들,20명과 학교 직원들 9가정, 전임학장님에게 보관된 선물과 약품들을 모두 나누었으며, 선물 외의 비품들 - 쥐, 파리, 개미, 모기 약 등은 학생담당자 하비에르가 관리하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 선물을 3곳의 분교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남겨주신 베다니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깔레로교회 분교에서의 강의 (약20여명학생)



모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 , 지난번 몇몇 한국 동역자님들의 지원으로, 구입한 깔레로 교회 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집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좁았으며, 알렉스 목사는 장기

프로젝트로 , 1만불이 지원되면, 약 76평(250m)의 새로 매입한 터전에 강의실 겸 아이들 교실을 확장할 수 있고, 1만불이 더 지원되면, 현재 교회 (38평) 2층을 올리는 소망을 놓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 이 두 가지 계획이 완성되면, 교육관과 교회, 그리고 분교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 현재 깔레로 교회에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교회가 먼저 1인 월 1불씩 (현재 약 1500원)작정 헌금을 시작하는 것을 권했을 때, 그것조차 현재 쿠바 성도들에게 어렵지만, 건축이 이루어질 할 경우, 설계비 외에, 교인들이 노동력과 전기 설치 등 다른 모든 부분은 무임금으로, 헌신 한다며 예산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 깔레로 교회가 처음 20-30여명으로 빈 집을 매입하여 교회를 시작한 후, 초기 확장 공사때부터, 한국교회의 지원이 있었고, 현재 매입한 터전 또한 한국교회의 몇몇 지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현재 어른 200여명, 어린이 80-100여명에 이르며, 계속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 쿠바의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며, 건축이 앞당겨 질 수 있기를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깔레로교회 터 구입한 곳-건축예정지



목회자 10 가정과 은퇴 목회자 2가정 지원 - 지금까지 어린이 입양만으로 지원하였던 기금을, 자녀가 성장하여도, 여전히 어려운 목회자 2가정을 포함하여, 목회자 10가정과 은퇴목회자 2가정- 모두 12가정에, 지원했습니다 . 어느 한 주일 예배에서 잠시 한국교회에서 좀도리를 모아 목회자 생활비를 돕고, 또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쿠바 교회와 학교를 섬기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며, 언젠가는 쿠바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 이후 목사님은 본인들의 가정 또한 한국 교회의 헌신이 담긴 목회자 어린이 입양의 지원을 받아, 그 딸이 목회자가 되었고, 제가 목사님 자신과 딸 모두의 교수였다며 ,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 저는 한국 교회와 쿠바 사이에서 통로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과 한국 교회의 헌신을 통하여, 쿠바 땅에서 목회자를 양성하셨으며, 그 딸도 이처럼 신학의 길에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음에, 새삼 감회가 새로왔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 묵묵히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사랑에 쿠바 목회자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 지원 - 변함없이 신학교 지원을 잘 감당했습니다 . 현재 학교는 쿠바의 대중교통의 부재로 교수들도 학생들도 학교에 매 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며 , 본교생들은 월 2주간 학교에 들어와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 학장, 부학장님, 시간강사, 그리고 본교와 10곳의 분교 지원을 잘 마쳤습니다 . 한국의 고 환률과 상대적으로 코스타리카의 달러 하락으로, 신학교 지원이 좀 염려되었으나, 쿠바 내의 변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작년부터, 저는 주로 분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문할 수 있는 교통비와 체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어 가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순회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쿠바 현지 교수들은 어려움) . 보리스 학장님은 대중 교통이 완전히 붕괴되어, 당분간 학교는 , 판데믹 때와 같이, 거리가 먼 아바나 와 동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것이며, 학교가 있는 빠나르델 리오 도시 주변의 본교 학생들만 학교에 와서 공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 안 ,전도 -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쿠바를 떠나는 2명의 청소년들- 16살 18살 - 옆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3년전 어머니가 쿠바를 떠나 페루에 거주하고 있어 어머니의 초청으로 큰 기대에 부풀어 페루를 향하는 중이었고 ,아버지는 다시 3년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 전도를 하자 , 한 학생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 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오늘도 묵묵히 쿠바와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며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 저는 바울 선교회 초청 선교대회로 , 한국에 6월 20일에 도착 할 예정입니다 . 쿠바 선교 보고가 필요하신 교회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10일 임순심 드림

////////////////////////////////////

추신 : 쿠바의 급변하는 , 한 편으로 위기 상황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은행 -국내에서 조차 은행을 통한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를 많이 공제하거나 혹은 은행이 돈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신학교의 오래된 -60년 이상 된 트럭 수리비용으로 3개월전 미국인 선교단체에서 5천불을 쿠바 은행으로 송금하였는데, 쿠바 은행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선교 초기에 300불을 시범적으로 송금했다가 , 코스타리카 은행에서 한 달 후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250 만 돌려 받았던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 이 경우는 단 10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쿠바는 국내 은행 이체 송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타 쿠바상황 -

쿠바의 변화에 대한 학장과의 대화 -하루는학생 담당으로 섬기게 된 하비에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세계정세 속에서 쿠바의 자유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설령 트럼프가 카넬 디아스 대통령을 , 데려가면, 67년-70년(혁명시기까지 포함) 동안
고통받아온 백성들은, 모두 환영할 것이지만 , 무력감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여전히 남은 군대는
탄압할 것이라며 , 기대나 소망보다 두려워 했습니다 제가 무기도 없는 나라가 , 총알로
미사일이나 폭탄을 대항할 수 없지 않겠는가 ? 쿠바의 전무한 무기 상황에 대한 농담가운데, 70년대
총알을 피웅피웅, 날려보아야, 광 한 방의 미사일로 산산조각이 나는, 막강한 무기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며 쿠바를 돕던 그 어떠한 강대국도 현재,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나라는 없다고 하자,
긴장을 풀고, 바닥을 치며 웃음을 터트렸다 .최근 쿠바 공산 독재자들은 미국에 대항한다며,
달구지에 소를 메달아 미국을 향하여 데모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쿠바의 위기상황이 한국 뉴스에도 보도 되는 것과, 몇몇 지인들의 염려를 듣게 되어, 잠시
학장님과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장님은 - “쿠바가 석유는 없으나,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쿠바 , 북한의 공통점이 바로
장기 공산 독재 국가들이며, 쿠바는 북한보다 더 오랫동안 공산독재 국가 시스템으로, 더이상
자생할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의 무력감은 독재자를 향하여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 반면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이 열리며 페이스북을 통하여 , 눈이 열린 청년이나 어른들은 가족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으며 ,군대를 비롯, 정치, 경제(기업, 금융등 모두 포함), 문화 , 법과 언론
등은 공산 독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에사(Gaesa)가 장악하고 있다 . 국민들은 장기 군사 독재
하에서 교육되고 훈련되어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음하면서도 감히 저들을 향하여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것처럼, 또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이란의
독재자를 제거한 것을 지켜 보면서, 하나의 희망이 쿠바 국민들에게도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최근에
식기구-양푼과 숟가락 등- 을 들고 거리에 나오게 되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서 이
시기에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 쿠바는 다시 이와 같은 자유를 얻을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쿠바에서도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이 ,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면,
장기적인 독재자들을 제거한 세계의 영웅으로 남게 될 것이다. “ 라고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열변을
토해 냈습니다 .

이란은 이슬람 신정체제와 (1979년) 47년째, 하메네이의 38년 독재 하에서 , 그 정권에 반대 한
시민들에게 실탄을 장착하여,수만명의 희생자를 낸 것은 , 5.18 대한 민국의 계엄령하에 2천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던 것과 비교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은, 이란의 혁명세력이나,
쿠바의 공산주의 혁명 군사정권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을 교육과 군대를
통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고 무력하게 교육 시킨 결과, 스스로 저항할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
혁명 정권 이전의 모든 건강한 기업들을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무너뜨리는 것의 틀로, 공산
독재정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하여, 무너뜨렸고, 이후, 평등한 세상을 주장하며 포퓰리즘으로 ,
선심을 사며, 시장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으므로, 생산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에너지를 많이
보유했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원조로 나라를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 자체 생산력을 살리면 그것은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장악한 정권을 내놓을 수
없는 일당 독재자들은 ,백성들은 15-20불을 받도록 하며, 현재 67년째 고혈을 빨아 먹으며 기생충

처럼 나라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쿠바의 정치 경제, 종교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쿠바 백성들이 67년째 겪고 있는 공산주의 독재치하에서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것은 무관심하며,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쿠바 백성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변화를 이뤄 주기를 염원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며, 도리어 트럼프의 방해-마두로 체포-로 마치 과거에 잘 살았던 쿠바가 갑자기 가난해진 것으로 왜곡된 보도와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두로 또한, 풍부한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공산품 농산품이 자생적으로 풍부하게 생산되었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트리고, 공산 국가를 추구하며, 베네수엘라에서 27년 장기 공산독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인건비는, 평균 월 100불에 불과 했고, 상대적으로 마두로는 조 단위의, 개인돈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세계 마약 유통의 나라로서, 중남미는 물론 미국이나 세계에 악한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속에서 가난해지는 삶을 견디지 못한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 중남미 여러 나라의 국경에서 유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중남미 나라들에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이전에, 각 나라들은 이들로 인하여 힘들어 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으로 국가 시스템이 전환되기 시작하자, 유랑민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당일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쿠바 백성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에 나와 - 이전보다는 많은 수- 외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가난과 굶주림, 전기나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버틸 힘을 잃고 거리에 뛰쳐나오고 있으며, 99%의 쿠바 백성들은 트럼프의 손길- 마르코 루비오의 손길을 기다리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는 금요일 아침 새벽6시, 주말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13km 거리이며, 길은 오르막, 내리막길, 돌길과 흙길, 패인도로를 따라 자전거로 갑니다 4년을 함께 한 학생이었고,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최근 13km 거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학교 학생담당으로 동시에 섬기게 되어 월요일-목요일까지 학교일을, 수요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과 기도회를 갖으며, 금요일 새벽에 교회를 향하여, 심방을 하고,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며, 학생모임을 갖고, 주일에 설교를 한 후, 주일에 다시 자전거로 학교에 돌아옵니다. 하루는 하비에르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기가 없으므로, 태양 빛이 있을 때, 좀 이른 저녁에, 요리는 숯불을 피워서 만들었으며, 우리는 숯불로 지은 밥이어서 더 맛이 좋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며 식사를 했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없는 쿠바의 부엌 (숯불로 요리)



24시간중, 2시간 전기가 들어왔을 때 ,충전해 놓은 충전 형광등을 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쿠바의 가스생산과 현대 발전기 상황- 대화의 주제는 쿠바 석유 공급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쿠바는 아바나의 마자베게 (Mayabeque) 주 -까나시, 산 힘나시오, 히바꼬아 도시- 중심 에서 30%정도 정제되지 못한 석유가 생산되며, 이것은 쿠바 전역에 전기 공급으로 사용됩니다 . -아르데미사 (ArteMiza) 주 , 땅에 가스가 있지만 ,장비가 러시아 산으로 오래된 것이어서, 가스는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 가스는 주로 가정용이나 , 식당, 공공기관 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 -약 15년전 현대가 들어와 발전기를 설치한 후 전기 공급은 잘 되었으나, 기계가 고장 나고, 그것을 복구하지 못하여, 다시 전기 문제가 발생했으며 또 다른 원인은 벼락으로 , 2 ,3년전 , 석유탱크가 화염에 휩싸였는데, 이것을 복구할 비용이 없어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쿠바의 상황은 마두로 사건 훨씬 이전이며, 29년째 섬기는 기간 중 쿠바의 전기와 물 상황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공급되었던 시기는 , 현대가 발전기를 설치한 시점부터 , 고장나기 전 까지 였던 것 같습니다 //

#거리에서 혹은 이웃간에 석유 판매의 배경 - 멕시코, 러시아 ,콜롬비아 등에서 간간히 들어오는 석유를 비롯 쿠바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 ,모든 무역, 금융, 기업 등 -경제, 정치, 문화를 관리하는 곳은 , 가에사 (GAESA - 공산당 일당 독재자 산하 회사) 입니다 . 농부들이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운행에 필요한 석유 공급을 포함하여, 정부 차량-버스나 택시 등 가에사는 수요와 공급을 통제 관리하며, 주요소에 공급되는 것은 주로 외국인들의 렌트 차량에 높은 달러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경찰의 눈을 피하여 거리에서, 혹은 이웃간 판매하는 석유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질문했을때, 예를 들면, 농부가 트럭으로 밭을 갈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10km를 가는데 1L 의 석유를 공급받으면, 내리막길에서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 0.2L를 저축하며, 혹은 담배 농사를 짓는 농부가 물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석유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비가 오면, 사용하지 않는 석유들을 모아, 이웃간에 혹은 정부 모르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 어떤 농부는, 트럭 사용으로 석유를 공급

받은 후, 좀 더디고 늦어 지지만, 소를 사용하여 받을 갈고, 석유를 저축하여 거리에서 판매를 하면, 그 기금이 농사로 얻는 액수보다 많기 때문에 트럭이 아닌 소로 받을 경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쿠바의 상황은 농부에게조차 석유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로, 석유를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

#공산 독재자들의 항상 같은 변명-미국의 무역장벽 -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67년 동안, 외국에서 원조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쿠바 정부는 항상 미국의 블로케오 (무역장벽)로 덮어 씌우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판데믹을 계기로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사용하게 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밖의 다른 세상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서, 국가의 현재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깨달아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이 양푼을 비롯 식기들을 두드리며, 산발적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교회들 지원 - 트럼프 정권이후, 카톨릭 교회들을 중심으로, 개신교 교회들을 포함하여, 3-4개월 간격으로, 쌀과 콩을 약 2-3년 전부터 공급해 주고 있어 쿠바 교회는 하나님과 미국에 감사하며, 교회들은 일주일에 1회, 혹은 1개월에 1회 씩 만이라도 지역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의 섬김은 쿠바 교회 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만일 쿠바 정부에게 공급하면, 가에사(Gaesa, 독재자 기업)가 그것까지도 백성에게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러한 석유 공급 루트를 통하여 석유 20L를 약 60\$에 구입을 하였는데, 현재 쿠바 환율은 -1불에 645페소로, 코스타리카 (1불, 450) 보다 아주 높습니다. 하비에르는 학교로 이사를 위하여, 석유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나,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석유가 쿠바로 들어오는 경우, 미국이 봉쇄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이러한 나라들이 원조를 할 때, 봉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각 국가들이 더 이상 쿠바와 교역을 할 수 없는 쿠바 시스템으로 무역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호국이었던 스페인은 쿠바 정부와 호텔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쿠바 정부가 법을 바꾸어, 가장 최근에 역으로 스페인이 빚을 지도록 하여, 스페인 호텔 기업들은 빚을 안고 철수하였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스페인은 리모델링을 비롯 많은 투자를 했으나, 투자 한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빚을 안고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쿠바, 마을, 가정들의 저녁 식사 준비 -해가 기울어 가는 마을은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24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 둘 태양광 충전 형광등을 밝히고, 숯을 피워 저녁을 준비합니다. 숯에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하여, 선물했던 과자 봉지를 태워 숯 가운데 놓습니다 종이보다 비닐은 불의 수명이 더 길게 이어짐으로, 비닐이 좋지만, 냄새는 종이 타는 것보다 고약합니다. 숯을 피워 밥을 짓고, 죽을 만들고, 비싼 토마토를 구입하였으며, 값비싼 튀김 고로케 - 쿠바 밖에서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음식- 도 제가 도착하기 전에, 손님 대접을 위하여 비싼 상점에서 구입하여 정성으로 식탁을 차려 놓은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마웠습니다 . 저녁 식사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쿠바의 관례였으나, 어두워진 곳에서 , 한 방울의 물도 귀한 상황에서 샤워는 누구에게나 귀 찻은 관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샤워를 하지 않은 채 ,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숯불에 커피를 끓여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도 여전히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어제 남은 수프를 숯불에 데워서 제 자리에 있어, 조금이라도 함께 먹자고 하니,본인들은 빵 장사가 오면, 토마토와 함께 빵을 먹을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숲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 사실 아침을 먹을 수 있는쿠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제가 빵 장사가 오면 많은 빵을 구입해 주려고 기다렸으나, 어제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빵 장사 또한 빵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며, 자전거로 다니며 빵을 소리높여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를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 결국 어제 남은 닭고기 한 조각은 딸 자다리가 아침으로 먹고 ,부부는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혼자 숲을 먹은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고 미안하여 학교에 돌아와 사례를 했습니다

쿠바 일반 초 중고등 ,대학교들의 실태 -학교 차량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우리는 학장님의 둘째 딸의 라이드를 위하여 학교 정문 앞에서 잠깐 기다리던 중 , 학장 아내 아나마리는, 딸이 시내로 학교를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학교 주변의 중학교를 다니던 중,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교통이 닿지 않아 , 일주일에 1회 학교가 열리지만, 그나마 교사들이 교통의 부재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학생들은 집에서 과제로 수업을 대신 하던 중, 도시 중학교는 주간 수업이 진행되고, 마침 자리가 하나 나와서 학교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 이것이 현재 쿠바 상황입니다. -쿠바의 변화를 위하여 하루 한 번 씩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